

“海中절경지 및 희귀동식물 보호法” 制定을 促求함

吳 判 龍

수개월전 TV화면에는 濟州도 西歸浦 앞 문섬 해저의 희귀 해양식물들의 훼손상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된 적이 있다. 제주명물이란 관광잠수함의 지나친 近接운항으로 우리나라 海底의 祕境이며 海中희귀 동식물의 寶庫로 알려진 濟州 서귀포 海底가 유린당하고 있음을 보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도대체 허가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잠수함의 관광 코-스지정이 당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인지, 선박회사가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관광객의 무리한 근접요청에 영합하여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임의로 항로를 변경해서 일어난 자연파괴실태인지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TV영상에 생생하게 포착된 연분홍빛 산호군락을 비롯한 海中의 절경지대에 茂盛한 희귀해저식물과 그 아래 서식하는 희귀 동물의 아름다움은 형용하기 어려운 일대 장관이었다.

이러한 절경지대의 대부분이 관광잠수함의 무리한 근접항해로 인해 희귀식물이 부착한 바위가 통채로 무너져 내리고 植生들이 船體에 부딪쳐 부러지고 船腹에 깔려 문질러진 慘相은 상당기간 계속된 듯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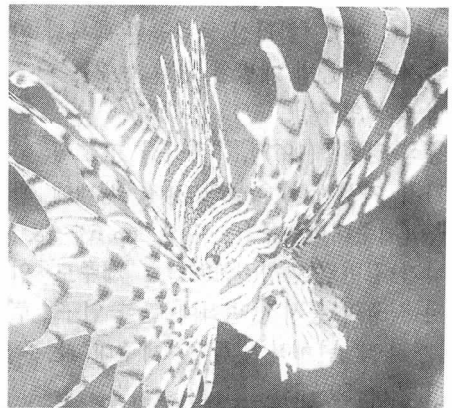
「카메라」는 관광잠수함의 선체가 바위와 부딪친 선명한 상처와 줄(線)들을 찍었으니 파괴자가 관광잠수함이란 사실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89년말에 발간된 「국립공원」 44/45호의 提言을 통해서 우리도 海中公園指定을 서둘러야 하며 국토를 사랑하는 자원봉사단체가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1934년에 국립공원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는 현재 28개의 국립공원과 55개의 국정공원 299개의 都道

府縣立공원을 갖고 있으며 1968년에는 재단법인 海中公園센터를 설립하여 희귀海中 동식물보호에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국립공원내에 설정된 海中公園地區는 陸中海岸국립공원을 비롯한 10개 국립공원내에 27개地區, 13개 국정공원내에 30개지구도합 23개 자연공원내에 57개지구의 海中公園이 지정되어 있으며, 北海道에서 鹿兒島까지의 각급 자연공원내의 48개소 適地에 사치와 대규모 건축을 배제한 국민휴양촌을 지정하여 국민들이 실비로 자연공원내서 자연을 접하며 휴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청에서 수년동안에 걸쳐 조사한 방대한 전국도(해중포함)의 동식물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내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사계의 권위진이 모여 해중이용·개발의 폭주에 대응하여 해중동식물 및 해저 절경지대의 항구적 보호를 위한 法制定 公布를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진=7월9일 한국일보 「제주 문섬 해저탐사 르포」 사진중의 하나인 「쓸베감펍」의 아름다운 무늬. 난류성 어류인 쓸베감펍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어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태이나 등지느러미에 毒線이 있다함.)

[筆者：國立公園協會 理事]